

21 세기의 고령화:

축복받을 성과와 당면한 도전

요약



In collaboration with: ONU
DAES, FAO, OIT, HCDH, ONUSIDA, PNUD, ONU-Habitat,
HCR, UNICEF, ONU-Femmes, PAM, OMS, CEA, CEE,
CEPALC, CESAP, CESAO, GAA, HelpAge USA, IFA-FIV,
INPEA, OIM

요약

21 세기의 고령화:

축복받을 성과와 당면한 도전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New York, and HelpAge International, London

Copyright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and HelpAge International, 2012. All rights reserve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605 Third Avenue, New York, NY 10158, USA
hq@unfpa.org
www.unfpa.org

HelpAge International
PO Box 70156, London WC1A 9GB, UK
info@helpage.org www.helpage.org
Registered charity no. 288180

The views and opinions expressed in this report are those of the contribut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ose of UNFPA or HelpAge International.

The designations employed and the presentation of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do not imply the expression of whatsoever on the part of UNFPA and HelpAge International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ny country, territory, city or area or of its authorities, or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its frontiers or boundaries.

The term 'country' as used in the text of this report refers, as appropriate, to territories or areas. The designation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intended for convenience and do not necessarily express a judgment about the stage reached by a particular country or area in the development process.

ISBN 978-0-89714-981-5

21 세기의 고령화:

축복받을 성과와 당면한 도전

고령화는 사회 전반의 모든 면에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으로 1 초마다 두 사람이 60 세 환갑을 맞이하고, 한 해를 기준으로 하면 5,800 만 명이 환갑을 맞이하는 셈이 된다. 현재, 60 세 이상의 인구는 9 명 중 1 명의 비율이지만, 2050 년에는 5 명 중 1 명의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다.

『21 세기의 고령화: 축복받을 성과와 당면한 도전』(Age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Celebration and A Challenge)에서, 고령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제 2 회 고령화 문제 세계회의(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이후, 고령화가 진전된 세계가 가져다주는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여, 「고령화 문제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여타 관련 당사자들이 취해 왔던 정책이나 행동을 검토한다. 이 책은 또한 고령화 문제를 다루면서, 고령자들의 우려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의 많은 사례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격차를 확인하고, 청년들과 함께 고령자들에게도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연령층을 위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향후의 과제」(way forward)에서, 이와 관련된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 책의 특징은 세계 각지의 고령자 남녀들과 상담을 통하여 고령자 자신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유엔 산하 20 여개 기관과, 인구고령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국제기구가 협력한 결과의 산물이다. 그 결과로서,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정책, 전략, 계획, 법률을 채택하는 등,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며, 마드리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고, 고령화하는 세계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인구고령화

인구고령화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발전수준에 있는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개발도상국이지만, 그 중에는 유소년인구가 많은 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고령자 인구가 1000 만 명을 넘는 나라는 15 개국이지만, 그 중에서 7 개국은 개발도상국이다.

고령화는 한 나라의 발전이 가져온 성과이다. 수명의 신장은 인류가 달성한 최대의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영양과 위생, 의료, 보건, 교육, 경제생활이 개선되면서, 사람들은 장수(長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기대수명이 80 세 이상이 되는 나라는 33 개국이다. 5 년 전에는 같은 기대수명에 도달했던 나라는 19 개국이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다수가 80 대, 90 대 그리고 마침내 100 대에 도달할 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60 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30% 이상인 나라는 일본뿐이지만, 2050 년에는 일본 외에 고령자 인구가 30%를 넘는 나라는 64 개국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발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건강한 고령자 인구가 사회 전체에 대하여 수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이나,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동이 가져다주는 기회도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는 또한 개인, 가족, 사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도전적 과제를 선사한다. 유엔 반기문(潘基文) 사무총장이 이 책의 서문에서 지적하듯이, “이 [고령화] 현상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고령자 본인과 그 직계가족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확대되어, 사회 전체와 글로벌 공동체의 요소요소에 그 영향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질 것이다.” 사회가 “장수 보너스”(longevity dividend)의 결실을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러한 고령화의 도전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고, 점증하는 고령자 인구가 선사하는 기회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는가와 관련된다.

고령자 인구의 절대수와 구성비가 다른 연령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여기에 많은 나라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가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도전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다.

인구고령화가 가져온 당면의 과제에 대응하고, 여기에서 그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책은 사회 전체, 노동력, 사회적 관계, 세대 간 관계를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신념과 확고한 데이터와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좀 더 원대한 발전계획 속에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통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두 존경과 안전을 누리고, 기본적 인권의 모두와 기본적 자유를 실현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노년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당면한 도전과 극복해야 할 기회의 양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세계가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處方箋)이다.

고령화 대전환의 특징

총인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그 인구를 고령화 인구로 분류한다. 출산율의 저하와 생존연수의 신장은 인구고령화를 가져왔다.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은 신장되어 왔다. 2010-2015년의 기대수명은 선진국이 78세, 개발도상국이 68세이다. 2045-2050년에는 선진국의 신생아는 83세까지, 개발도상국의 신생아는 74세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50년 당시, 세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억 500만 명이었다. 2012년에는 해당 연령층 인구가 8억 10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10년 이내에 10억 명에 이르게 되고, 2050년에는 다시 배가하여 2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령화 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현저하다. 가령, 2012년의 60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아프리카 6%,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10%, 아시아 11%, 오세아니아 15%, 북미 19%, 유럽 20%였다. 2050년에는 아프리카 인구의 10%, 아시아 인구의 24%, 오세아니아 인구의 24%,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인구의 25%, 북미 인구의 27%, 유럽 인구의 34%가 60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전체를 보면, 고령자의 절반은 여성이고, 현재, 60세 이상 여성 100명에 대하여 60세 이상 남성은 84명이다. 80세 이상은 여자 100명에 대해서 남성은 61명에 불과하다. 남성과 여성은 고령을 경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젠더관계(gender relations)는 자원과 기회를 이용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계속되고 동시에 누적되기 때문에, 생애과정 전체의 모습을 규정하게 된다.

많은 경우, 여성들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차별을 당하는 수가 많다. 취업을 하거나 건강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종 차별에 취약하고,

재산보유나 상속의 권리가 부정되고, 최저한의 기본소득이나 사회보장도 확보되지 못한다. 고령의 남성들도 특히 정년 후에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약화로 취약해지고, 금전적 차별 등 각종 오남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남성과 여성 간의 이러한 차이는 공공정책과 사업 프로그램의 계획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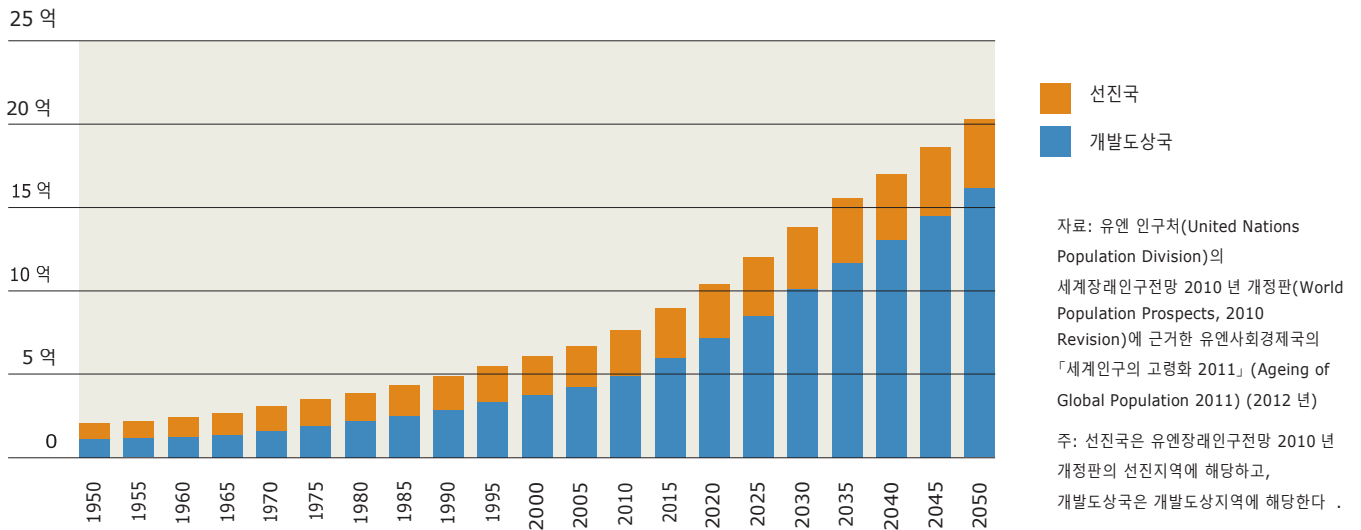
고령자 세대는 하나의 포괄적 정책으로 그들의 모든 요구를 일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동질적 집단이 아니다. 고령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표준화(標準化)하지 않고, 가령 연령, 성별, 민족, 교육, 건강상태 등 다른 연령집단과 동등하게 다양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층, 여성, 남성, 후기고령자, 원주민, 문맹-무학자, 도시주민, 농촌주민 등 고령자들이 구성하는 개별적 집단에는 그들의 특유한 요구와 관심이 있게 마련이고, 이들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나 개입모형을 개발하여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회 고령화 문제 세계회의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의 도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회 고령화 문제 세계회의는 고령자를 발전프로그램 속에서 주류(mainstream)에 배치하고, 건강과 안정된 생활 상태를 고령기에도 유지하도록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지원정책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P)을 채택하였다.

마드리드플랜은 고령자를 단순히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발전과정에서 권리가 존중받는 적극적인 참가자로 간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21세기의 고령화: 축복할 성과와 당면한 과제』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마드리드계획 수행의 10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진전 상황을 돌아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60 세 이상 고령자의 총수, 세계 전체, 선진국, 개발도상국: 1950-2050





이 책의 핵심적 연구 성과는 60 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돌봄 제공자, 유권자, 자원봉사자, 기업가로서 놀랄 만큼의 생산성을 발휘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정액소득, 사회적 네트워크,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세계 어디에서나 현재의 세대나 미래의 세대도 장수의 배당을 향유할 가능성은 있다.

이 책에서는 각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이 21 세기의 인구구조 대변동이라는 현상에 맞추어, 21 세기 사회를 재편성하는, 지구적 규모의 노력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이 책은 연령층에 대응하는 각종 투자를 사람들의 출생과 동시에 시작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비용 대비 효과 산식에서 오는 순이익의 증대는 높은 수준에서 진전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소득보장

세계적으로 고령자들에게 가장 긴급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문제는 소득보장 (所得保障)이다. 이 문제는 건강과 함께 고령자들에게 빈번하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소득보장과 건강의 두 문제는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대변화에 직면한 정부의 경우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이 틀림없다.

세계불황으로 재정 상태는 팍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을 위한 경제적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보하는 문제는 엄청난 난제임에 틀림없다.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을 보증하고, 빈곤을 추방하는 방법으로서 연금제도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시되고 있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특히 선진국에서도 최대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노동력의 절반이 비공식부문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고령자의 사회적 보장과 노년연금보험제도를 확충하는 일이 지금도 중대한 도전으로 남아 있다.

고령자 전원에 대해서 소득보장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보건의료와 사회적 서비스의 이용을 보증하고, 고령이 되어서 가능한 한 장애상태에 이르지 않고 빈곤상태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보호의 최저기준(SPF: social protection floor)을 설정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된다. 인구고령화 그 자체가 경제발전을 저해하였다거나, 각국에서 고령자 인구에게 연금이나 건강의료서비스를 보증하는데 충분한 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포괄적인 사회보호제도를 갖춘 나라는 전체의 1/3 에 불과하고, 그것도 정규직에 고용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에 이르지 못한다.

연금,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연금은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닐, 연금수급자가 있는 가족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연금이 해당 가구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며, 젊은 연령층이나 그 가족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나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상태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예방, 치료, 장기케어가 포함된다.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자립의 유지, 질병과 장애의 예방이나 발병 지연, 치료의 제공에 초점을 맞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기술, 의학적 연구, 재활케어를 추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고령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고령자 케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기초적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영양복지사와 보건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 지역 내의 케어 제공자. 특히 신체가 허약한 고령자의 장기적 케어를 담당하는 케어 제공자 모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케어 제공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사회 전체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보증함으로써 인해, 고령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보다 큰 기회가 확대되고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 친화적 환경의 조성

고령이 되어서도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장려하고,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며, 고령자를 배려하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이 특히 중요하다. 연령이 많아지면, 이동이 곤란하고, 시력과 청력이 쇠퇴하기 마련이다. 고령화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이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은 자립의 유지, 사람들과의 교류를 진전시키고, 연령이 많아져도 사회전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고령자, 누구보다 취약한 처지에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 학대, 폭력을 현재화(顯在化)하여, 이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특히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법적문서의 작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었다

향후의 과제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고령의 부양가족을 케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가족이 중심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에게 있어서 그 대가는 대단히 크고, 그들의 저축능력, 고용 가능성, 생산성에 미치는 손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내 구성원 간의 사적이전(私的移轉)은 이제 더 이상 자동적으로 고령자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으로 간주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책은 사회전반의 변화에 부응하여, 고령자의 생활환경도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규모는 줄어들고, 세대 간 지원방식도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년세대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된 결과, 어린 아이들과 고령자들로 이루어진 조손세대(祖孫世代) 가구가 농촌지역에서 상당한 숫자에 이르게 되었다. 고령자가 육아와 가사는 물론, 성인이 된 아들과 손자녀(孫子女)를 지원하여 상당한 경제적 공헌도 하고 있다는 실례를 세계 각지에 있는 고령자들과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민은 현재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나아가 장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고용, 보건의료,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국민 각층의 누구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증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청소년의 교육과 취업의 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적자본에 강력한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정부와 사회 전반에 어려운 과제를 선사하고 있지만, 이것을 위기로만 간주할 필요는 없다. 과제를 기회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또 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 책은 국민이 고령에 이르러서도 질이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전향적인 해결의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본서의 작성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데 참석했던 고령자들의 목소리는 소득보장, 유연한 고용기회, 지불 가능한 요금의 건강의료 서비스, 고령자를 배려한 주택과 이동시설, 고령자에 대한 차별, 폭력, 학대의 철폐 필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령자들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사회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으며, 존경받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였다.

이 책은 경제사회개발 영역에서 고령화 문제에 더욱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시의적절하고, 질이 좋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능력개발, 예산배정, 정책수립 등으로 뒷받침되는 고령화에 대한 개발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명백한 논거가 존재한다. 세계의 각국이 2015년 이후 국가별 진로를 고찰할 때에는, 인구고령화와 고령자의 관심사에 대한 정책대응을 중심에 두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급속히 고령화하는 세계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령화와 관련되는 명확한 개발목표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고안: 고령인구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10 가지 우선행동

1. 인구고령화는 불가피한 인구변동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기관(정부, 민간부문, 지역사회, 가족) 모두가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강화하여, 고령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2. 고령자 모두가 품격과 안정감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증한다. 이를 위하여, 나라의 사회적 보호의 최저기준(SPF, Social Protection Floor)이나 여타 사회적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고령자가 기본적인 보건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를 향유하고, 최저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하여 자립, 독립하여 생활하는 기간을 연장하며, 고령기의 공핍을 예방하고, 보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행동계획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책임의식과 위기 또는 정권교체(政權交替)가 있는 경우에도 계획 자체가 후퇴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산상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나 가족을 지원하여, 허약해진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케어를 받게 하고, 적극적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支援體制, support system)를 정비하여 고령화의 진행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한다.
4. 미래의 고령세대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최고의 선행투자로서, 현재의 청년층에게 투자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촉진하고, 교육과 고용기회, 건강의료서비스의 이용, 노동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고령자 세대를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통합시키기 위하여, 유연성(柔軟性) 있는 고용제도(flexible employment), 생애학습(生涯學習, lifelong learning)과 재훈련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고령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하는 국제적, 국내적 활동을 지원하고, 젠더(gender)와 문화를 배려하는 데이터와 그것을 이용한 연구에서 명백해진 사실들을 정책수립의 담당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6. 고령의 여성과 남성 각각의 요건을 배려하여, 고령화를 젠더 관련 정책에, 또 젠더 문제를 고령화 정책의 주류(mainstream)에 위치하도록 한다.
7. 고령화와 고령자의 요구를 모든 나라의 개발정책과 사업계획에 확실하게 포함시키도록 한다.
8. 고령화와 고령자의 요구를 국가의 인도적 대응, 기후변동의 경감 및 적응계획, 재해관리 및 준비계획 속에 확실히 포함시키도록 한다.
9. 고령화 문제가 특정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5년 이후 개발계획 스케줄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한다.
10.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고령자 문화를 창조하고, 복지 수혜자에서 활동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헌하는 사람들까지, 고령자에 대해서 사람들의 전반적 사고방식이나 사회전반의 의식의 변화를 촉진하며, 이를 위하여 국제적인 인권문서의 작성과 국내 법 규정으로의 전환, 연령에 의한 차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적극적인 대책(affirmative measures), 고령자를 자립하는 개인(autonomous objects)으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드리드계획의 우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행동

고령자와 개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결정에 고령자의 참여를 지원한다.
- 고령자의 조직에 투자한다.
- 생애학습의 기회를 촉진한다.
- 빈곤식감전략 중에 고령자를 포함하고, 1 일 125 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자와 기아나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당하는 고령자의 구성비를 반감시키도록 한다.
- 의무적인 퇴직 제도를 없애고, 일하는 고령자와 일을 하기를 바라는 고령자가 계속 일을 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한다.
-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동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촉진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연수와 보다 유연한 근무형태를 포함한다.
- 고령자의 요구와 능력을 인도적 상황이나 긴급대응상황의 대책에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 고령의 이주자, 난민, 피난민이 새로운 사회로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이 도시 또는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고령자를 지원한다.

고령기 건강과 복지의 보전

- 건강과 비전염성 질병을 생애에 걸쳐 관리하도록 하고,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건강증진을 장려한다.
- 건강한 장수생활과 재택케어(home care)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령을 배려한 적정요금의 일차의료와 이차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에이즈(HIV/AIDS) 예방, 케어, 치료계획 중에 고령자를 포함하고, 요양보호사로서의 고령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한다.
- 고령자가 물과 위생을 포함한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하여, 우선적 프로그램에는 실행책임이 있는 예산을 배분하도록 한다.

고령 친화적 환경과 지원체제의 확보

-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촉진하며, 연령에 의한 차별의 중지를 목표로 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시행하고, 이를 감독한다.
- 고령자에 대한 학대와 폭력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서, 조사하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 고령화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하고, 특히 이를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가족과 지역프로그램의 요양복지사와 고령자로서 다른 사람을 케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 고령자의 요구를 고려한 주택, 교통수단, 생활환경을 추진하는, 고령자 친화적인 도시를 장려하도록 한다.

능력강화, 조사, 데이터

-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고령자의 관심사를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감지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수립자들에 대하여 연수사업을 실시한다.
- 별도의 전용예산을 지출하는 고령화 관련 정부 부처나 사무국을 설치하고, 복수의 정부부처를 횡단하는 조치와 조정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모든 차원에 걸쳐 고령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를 지원하도록 한다.
- 고령자에 관한 모든 자료(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행정자료 등)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로 별도 집계하도록 한다.
- 마드리드계획의 실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실행체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Empowered lives. Resilient communitie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الأمم المتحدة - اللجنة الاقتصادية والاجتماعية لغرب آسيا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